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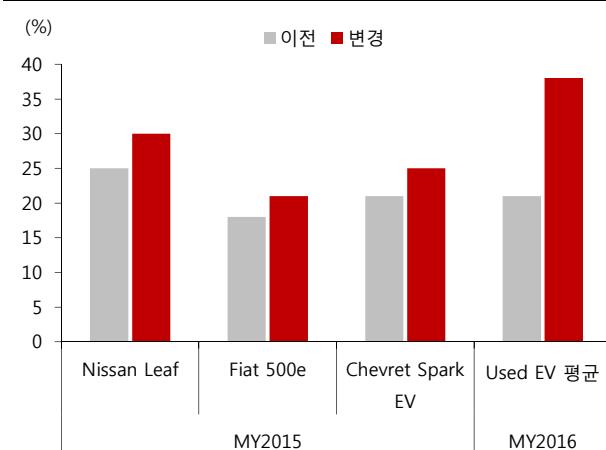
# Issue Comment

- ✓ 미국 중고 전기차 보유가치(Retention Value) 반등
- ✓ Longrange EV 판매 확대와 인센티브 축소가 주요인으로 판단
- ✓ 보유가치 상승은 소비자가 느꼈던 전기차에 대한 부담완화, 전기차 확대에 긍정적 요인

## 미국 중고 전기차 보유가치(Retention Value)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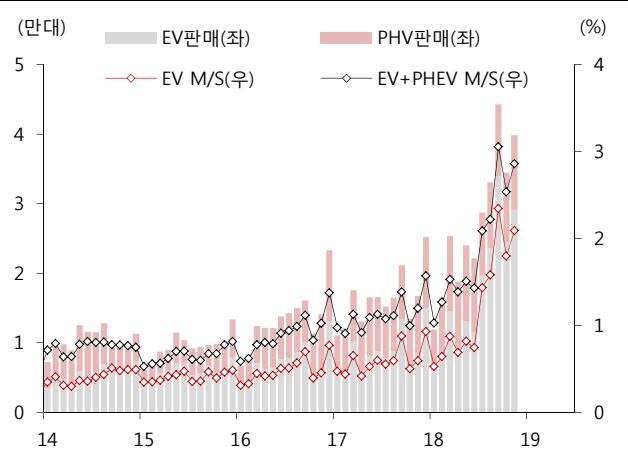
- 최근 미국 중고 전기차 보유가치(Retention Value)가 지속적인 하락에서 벗어나 반등. J.D. Power에 따르면 2015년형 Nissan Leaf의 경우, 출시가격 대비 보유가치는 기준 23%에서 30%로, Fiat 500e는 18%→21%, Chevrolet Spark EV는 21%→25%로 개선. Black Book에 따르면 2016년형 중고 전기차량의 평균 보유가치는 1년 전 21%에서 38%로 상승
- 18년 들어 Chevrolet Bolt와 Tesla Model 3 등 Long Range EV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며 EV/PHEV 판매량 증가. 이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많이 전기차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고, 향후 수요가 확대된다는 점이 보유가치 상승의 주요인으로 판단. 또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는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임
- 그동안 전기차 구매(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요인으로 부족한 인프라, 짧은 주행거리, 빠른 감가상각률을 꼽을 수 있음. 규제확대와 기술발전으로 인프라와 주행거리에 대한 제약은 완화되었지만, TCO(Total Cost of Ownership)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빠른 감가상각에 따른 낮은 잔존가치는 부담 요인이었음
-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추가적인 하향이 아닌 반등이 나왔다는 점은 중요. 소비자가 느꼈던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부담을 낮출 것으로 판단. 전기차판매 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미국 중고 전기차 Retention Value – 과거 대비 보유가치 상승



자료: 언론, SK 증권

미국 EV/PHEV 판매 추이 –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 전망



자료: Marklines,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